

철학사

30 토마스 홉스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네, 그럼 토마스 홉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홉스를 소개하면서 그의 동기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에게 동기는 중요하지만, 홉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독서 연구 시간은 오로지 베이컨과 홉스, 그리고 그들에 관한 참고 자료들을 읽는 데에만 쏟았습니다. 홉스 관련 문헌을 깊이 파고들수록, 그의 동기가 그의 생각뿐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1588년에 태어났다는 점에 주목해 보세요.

영국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날이 스페인 무적함대가 등장한 날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실제로 그는 어머니가 무적함대가 목격되었을 때 너무 겁에 질려 자신을 조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참으로 파란만장한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17세기 초까지 살았던 그는 1640년대 영국 내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왕당파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군주의 절대적 권위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왕권신수설에는 반대했다. 따라서 권위의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는 과연 정치적 권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고심 하게 된다 . 더욱이 그는 스페인과의 전쟁과 영국 내전을 겪으면서 인간은 본래 사회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어떻게든 우리는 법과 질서, 평화를 확립할 기반을 찾아야 하는데 , 그 자연 상태란 그가 말했듯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삶이 비참하고 짧으며 잔혹한 것이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인간의 삶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정치적 권위의 기반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어느 정도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보존이 가능한 토대가 필요했습니다 . 여기에 스페인과의 전쟁과 영국 내전 당시 왕정에 대한 갈등의 근간을 이루었던 종교적 갈등까지 더해 보십시오. 홉스는 당시 영국 성공회의 관용주의 전통, 즉 '넓은 교회' 라고 불리는 사상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범위한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 갈등을 피하고, 소수자에 대한 박해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교회 권위를 피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분과주의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종교적 통합이 무너지고 종교 개혁이 가져온 권위의 공백, 인식론적 공백이 바로 분과적 갈등, 타인을 용납하지 않는 일종의 개인주의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홉스는 그러한 상황을 극도로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폭넓은 교회 전통 안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본질적으로 에라스투스주의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매우 폭넓은 기독교 신앙의 최소한의 기본 원칙 외에는, 교회가 무엇을 인정해야 할지는 권위자들에게 맡기는 데 만족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교회, 즉 정부 당국이 세부 사항을 정하는 국가 교회가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종파 분쟁에 맡기는 것은 평화를 깨뜨리고 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갈등, 종교적 갈등, 폭력, 그리고 에라스투스적인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태도라는 배경 속에서 토마스 홉스는 자신이 유명해진 철학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철학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물로, 플라톤에 큰 관심을 가지고 플라톤 관련 저서에 대한 주석과 번역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국 르네상스 시대의 인물이었다. 한때 프랜시스 베이컨의 비서로 일했던 그는 베이컨의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과학적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기와 방법 모두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는 베이컨의 귀납적 방법을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여겼다. 본질적으로 베이컨이 하는 일은 훗날 '일정한 결합'이라 불리게 될 특정한 규칙성, 즉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정의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 인간 행동, 그리고 정치 질서에 대한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적 이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경험 과학에서 윤리학과 정치 철학의 발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갈릴레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학적 방법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가 개발한 거라고 말하려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하지만 적어도 갈릴레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 확실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재구성법이죠

재구성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 현상, 물리적 대상, 인체 등을 분석할 때 해부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 과학의 광범위한 일반화로부터 연역적으로 더 나아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경험적 전제, 즉 경험적 일반화를 전제로 삼는 것입니다.

경험적 전제에서 출발하여 연역적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체계는 수학이나 기하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연역적 체계의 논리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홉스가 데카르트에게 감명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고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데카르트는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철학을 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초기 회의주의는 단순히 방법론적 전략이었으며,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식별하고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완전히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절대적이며, 자명한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유클리드처럼 공리에서 출발하여 연역적으로 자신의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홉스는 선형적 지식을 공리적으로 믿는 합리주의자가 아닙니다. 홉스는 경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리에서 시작할 수 없었고, 귀납적 일반화에서 시작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감명시킨 것은 데카르트의 연역적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갈릴레오에게서 발견한 것과 같은 재구성적 방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 이런 방법론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방법론적 가정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전체 방법에 적용되므로 여기에 적어 두겠습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자연적인 인과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 과정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전제입니다.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과학 분야는 방법론적으로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물리학과 천문학에 적용되었던 방법들이 심리학과 정치학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아시 겠죠? 그래서 방법론적인 연속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가 이 점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보려면, 그 선집을 한번 보세요. 네, 바로 새 선집 말입니다.

87페이지. 87페이지. 여기서 장 제목이 여러 지식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식의 전체 범위를 살펴보죠. 그리고 저 멋진 도표를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포괄적인 주제인 과학은 결과에 대한 지식인데, 이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1900년경까지는 과학과 철학이 거의 동의어였습니다. 과학은 간단히 말해서 이론적 지식, 즉 결과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한 지식인가요? 원인, 결과, 영향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지식을 두 부분으로 나누더군요.

자연체의 우연한 현상에서 비롯되는 결과를 다루는 것을 자연철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체의 우연한 현상에서 비롯되는 결과를 다루는 것을 정치학 또는 시민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철학의 범위를 살펴보려면 오른쪽 열을 보세요. 기본 철학, 즉 존재의 기본 개념에서 기하학, 산술, 천문학, 지리학, 다시 말해 수학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물리 과학, 역학, 그리고 그것을 응용한 공학, 건축, 항해, 기상학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천문학, 즉 우리가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분야, 그리고 점성술, 별의 영향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주제죠.

하지만 광학, 음악, 그렇습니다. 음악의 물리학이죠. 윤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학문이죠. 다시 말해, 그는 도덕적 행동과 도덕적 욕망의 심리적 원인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 수사학, 논리, 그리고 정의와 불의에 대한 과학. 네, 그것들이 바로 언어의 결과, 우리가 언어를 통해 하는 일들이죠.

오,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 신사가 시로 숙녀를 기쁘게 했던 것처럼 단순히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득하는 기능도 합니다. 르네상스 문학에 익숙하시다면 아실 겁니다.

추론, 네, 잠시 후 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추론은 인과관계의 과정이며, 뇌의 작용에 의해 제어됩니다.

그리고 윤리는 어떤 심리적 인과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인과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 즉 정치체를 다룰 때는 공동체 제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공동체'라는 용어는 올리버 크롬웰이 자신이 수립한 정치체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크롬웰식 공동체. 공동체란 공동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민철학, 정치철학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무 와 권리, 나아가 입법 등에 미치는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분은 간단히 말해 물리적인 개별 주체와 정치적 주체 사이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과관계, 인과관계, 즉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되는데, 그는 단순히 방법론적 자연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 자연주의자이기도 한가? 형이상학적으로 그는 유물론자인가? 그가 탐구하려는 것은 결국 물질과 물질적 물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뿐이니까.

물질과 운동, 기계론적 관점. 그것이 과학 이다 . 그렇다면 그는 유물론자인가? 좋은 질문이다.

질문만큼이나 좋은 질문이네요. 그는 정말 결정론자일까요? 아니면 단지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일까요? 네, 저는 그가 유물론자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음, 그가 신을 믿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모든 원인의 원인, 즉 최초의 원인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 해야 하기 때문 이라고 하지만, 이성은 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로는 강력한 최초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신의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논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신을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적인 존재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물론, 그러한 전통은 스토아 학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스며들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고차원적인 물질적 존재 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 그렇다면 토마스 홉스는 일종의 유신론적 유물론자, 즉 기독교적 유물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의 견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음, 테르툴리안에게서도 그런 면이 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 이원론에 저항하기 위해 스토아 철학을 차용했잖아요. 토마스 홉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그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사상 전반에 걸쳐 기독교적 영향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90페이지를 보세요. 그가 뭐라고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90페이지 두 번째 열, 중간쯤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호기심, 혹은 원인에 대한 지식에 대한 사랑은 사람을 결과에 대한 고찰에서 벗어나 원인을 찾도록, 그리고 그 원인의 원인을 얻도록 이끈다. 결국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이전의 원인이 없고 영원한 원인이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원인에 대해 심오하게 탐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원하신 유일신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보이는 것들과 그 놀라운 질서를 통해 사람은 그것들의 원인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 의 보이는 것들 말입니다 .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사용하는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91절, 첫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즉 하나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원인들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루크레티우스와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종교의 자연스러운 씨앗입니다." 여기서 "종교의 씨앗"이라는 라틴어 표현인 "semen religionis"는 존 칼빈이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인간의 광범위한 신앙을 설명할 때 사용한 바로 그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모호한 신의 감각에서 비롯된 종교의 씨앗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감각, 즉 종교의 씨앗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홉스가 본질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으로 인해 자랐 는데, 칼뱅주의자였던 성공회 성직자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칼뱅의 사고방식에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탐구가 어떤 모호한 제1원인 개념, 즉 신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종교의 발전을 야기하며, 그 안에서 특정한 종교들이 신의 개념을 훨씬 더 상세하게 구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어떤 일반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종교들 속에서 구체화되고, 그 종교들에서 어떤 종류의 신에 대한 보편적인 감각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그는 '종교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다음 장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징표나 열매가 오직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므로, 종교의 씨앗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으며, 다른 생명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자질이나 탁월한 정도에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탐구와 호기심은 그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이 생겨나는 인간의 자연적 조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합니다 . 이것이 바로 홉스가 다루는 동기 부여 방식, 즉 방법론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들어오세요.

정말 흥미로운 배경이네요, 아주 흥미로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떤 작가는 그걸 주된 동기, 아주 주된 동기로 보고 있어요.

인 『리바이어던』을 썼다고까지 말합니다 . 그는 크롬웰 시대에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스튜어트 왕조 뿐 아니라 크롬웰과도 화해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시도 로 망명지에서 쓰인 것입니다 .

들려고 하네요 . 네, 네. 베이컨에게서 인과 관계를 이해하는 귀납적 접근법, 즉 베이컨이 말하는 '형상'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물론 패턴은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데카르트와 갈릴레오로부터 연역적 체계라는 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방법론적 자연주의, 즉 모든 것이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일반화를 더했습니다.

타당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 하는 걸까요 ? 우선 그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점은 선집에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각에서 시작하여 인간 사고의 기원과 발달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 제가 방법론에 대해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그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첫째, 그는 경험주의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인과관계 메커니즘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최초의 의식은 바로 그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 우리의 감각은 물리적 감각 의 원인 입니다. 물리적 감각은 외부 세계의 물리적인 어떤 것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외부 세계의 물리적 과정이 인간 자아에 미치는 영향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것인데, 제가 '특정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명목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홉스의 사상에는 오컴의 영향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알겠죠? 특정한 대상은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성이 우리의 감각 기관, 신경계, 그리고 뇌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자극은 그가 '심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반사 반응을 일으킵니다.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심장이 뛰는 것을 아시죠? 생각이나 행동, 또는 둘 다를 통해 심장이 일으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순전히 인과적인 설명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감각, 즉 그가 '환상'이라고 부르는 이미지들은 감각적 속성을 가진 정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은 일차적 속성과 이차적 속성 모두에 대한 인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경험주의에서 이 시점부터 매우 중요해집니다. 일차적 속성은 사물과 물체가 지닌 속성입니다.

당시의 기계론적 과학, 즉 뉴턴 역학에서 물리적 대상의 본질적인 속성은 무엇일까요? 물질은 어떤 것일까요? 물질은 공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 모양, 밀도, 무게, 그리고 공간 점유 속성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들이 물질의 주요한 속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속성, 즉 물체가 지닌 속성들은 의식 속에서 추가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색깔 있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칠거나 매끄러운 표면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라 의식 속에서 소리를 내는 물체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차적 속성은 우리의 오감 능력에 의존하는 속성입니다. 색은 시각과 관련이 있고, 소리는 청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촉감, 질감, 맛, 냄새. 오감.

자, 그의 요점은 우리가 색깔 있는 셔츠, 예를 들어 내 파란 셔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셔츠 자체가 파란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셔츠 때문에 우리가 파란색으로 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란색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2차 속성의 주관성, 즉 1차 속성의 객관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점이 버클리 학파에 가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숲 속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요?”라고 질문할 수 있게 해 줄 겁니다 . 왜냐하면 소음이 2차 속성이라면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소음이 있나요? 아무도 듣지 않는 소리는 소음일 뿐일까요? 의식 속에 소리의 파동이 감지되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감각은 그 시작인 셈입니다. 원인이 사라진 후에는 당신은 더 이상 제 셔츠를 보지 않지만, 여전히 제 셔츠에 대한 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각 기관 과 뇌의 변화, 즉 노화 과정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가 말하는 상상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상상력'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상상력을 창의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건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개념이지, 계몽주의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었죠.

상상력이란 단순히 남아서 사라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서로 뒤섞이는 이미지들입니다. 마치 나비 날개를 가진 요정 기린에 대한 제 이미지가 온갖 다른 쇠락해가는 이미지들 과 뒤섞인 것처럼 말이죠 . 그러니까 상상력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낼 때,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깨어 있는 동안 작동하는 것입니다.

혹은 잠자는 동안, 우리가 아주 생생한 꿈을 꿀 때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은 감각적 이미지가 쇠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부터 자신이 '이성'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추론이란 무엇일까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추론은 간단히 말해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이라고 하면, 그 과정은 결국 "4"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2 더하기 2는 4인 것이죠. 이처럼 의식적인 사고 과정은 뇌 활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뇌는 어떻게든 결합해야 할 것은 결합하고 분리해야 할 것은 분리합니다. 따라서 인과적 과정을 통해 2라는 인과적 자극에 이어 2라는 인과적 자극이 더해져 4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인과적 자극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즉, 추론은 전적으로 뇌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뇌의 원인 말입니다.

의식은 전적으로 뇌 과정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념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식에는 선천적인 관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각을 만들어내는 인과 관계 과정과 독립적인 선형적 지식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순수 경험주의가 확립됩니다. 하지만 언어는 어떻습니까? 언어는요? 바로 여기서 명목론이 명확해집니다. 그는 단어란 특정한 사물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특정한 기호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리바이어던』이 아니라, 그의 저서 『철학원론』에서, 하나의 이름, 즉 사물의 전체 부류에 적용되는 하나의 이름의 보편성, 바로 이 하나의 이름의 보편성 때문에 사람들이 사물 자체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사실상 불특정 명사라고 불리는 이름들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름들을 한정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마음대로 적용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이라는 말은 특정 집단 전체를 가리지 않고 적용하는 특정한 이름일 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전체 집단에 적용되는 거죠. 그는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이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개념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일반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유사성 덕분에 사물 전체의 집합체를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보편적인 개념을 참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떤 실제적인 보편자에 대한 언급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명백히 명목론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자신의 방법론에 얼마나 충실한지 주목해 보세요. 방법론적 전체부터 시작해 봅시다. 모든 것에 대한 인과관계 설명이죠.

감각에서 시작해 보세요. 감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뇌의 과정, 신경 과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기호의 사용은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극-반응 메커니즘에서 세상에 대한 경험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언어적 반응이죠. 그리고 인간이 가진 정교한 반응에는 언어가 관여합니다.

감각 경험과 무관하게 말이죠. 네. 모든 것이 물리적 과정을 통한 인과관계라면, 인과관계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관념은 존재할 수 없겠죠.

그 그림은... 네. 네. 네.

아니요.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흰색 대신 파란색을 예로 드는 데에는 특별한 마법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제 생각엔 그들이 색소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 속성과 부차적 속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색을 사용한다는 사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즉, 시각, 다시 말해 보는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시각과 색채 인식을 이야기할 때는 색이 주관적이라고 말하기가 훨씬 쉽죠. 물론 색채 시각의 물리적 원리는 감안해야 하지만요. 미각이나 촉각의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다른 문제죠.

알겠습니다, 데이비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음, 아시다시피, 정자 종교는 그 결과입니다. 종교가 어떤 씨앗 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자체가 신에 대한 감각, 즉 최초의 원인에 대한 관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라는 개념은 바로 인과적 탐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원인의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묻고, 그 질문을 맨끝까지 밀어붙이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이 인간에게 너무나 특징적이고, 어쩌면 인간 본연의 특성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특징적이어서, 우리는 그 질문을 맨끝까지 밀어붙여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신이라는 개념, 즉 종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인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울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인과적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도 곧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손자가 한 세 달쯤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바닥에 누워서 손자 위로 몸을 숙이고 다가가면 손자가 저를 올려다보던 기억이 나네요. 자극에 대한 반응, 원인과 결과 말이죠.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 같은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주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철저히 경험주의적인 설명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칸트적인 인과관계 범주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그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살펴보죠. 아시다시피, 그를 움직이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는 정치 체제, 윤리, 그리고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그 논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감각, 상상, 추론, 언어 사용과 같은 모든 활동은 의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유물론적 설명이든 다른 어떤 설명이든 간에,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그는 의식이 단순히 부산물, 즉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은 신체적 존재에 의해 생성되고 덧붙여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의식은 감각이나 추론처럼 뇌 과정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은 뇌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물리적 변화가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감각의 경우처럼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이죠.

때로는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인과 과정이나 물리적 변화가 비자발적인 신체적 효과를 일으켜 우리가 자동으로 숨을 쉬거나 신경과 사지가 반사 작용을 일으켜 나중에야 의식하게 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원인이 직접적으로 의식 상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상태들 중에는 욕망과 혐오가 있습니다. 욕망과 혐오. 어쩌면 토마스 홉스의 사상이 당신의 마음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력일지도 모르죠. 이해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경험이 단순히 인지적 내용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영향을 미쳐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는 뇌를 의식, 감각, 사고의 자리로, 심장을 혐오와 욕망, 즉 감정의 자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이성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열정, 감정, 그리고 욕망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것 또한 그의 사고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그가 온갖 다양한 욕망들을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에 대한 심리학을 상당히 잘 정립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와 결정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유와 결정론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자유를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외부의 제약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물론 내 욕망이 내 행동을 야기하고, 욕망이 내 행동을 야기하며, 내 행동은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자기 주도적인 것, 즉 내 자신의 욕망, 욕구, 열정에 의해 발생하는 내면의 자기 결정으로 이해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느끼는 또 다른 차원의 자유에 대해 조금 탐구합니다 .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의 자유. 그게 뭐냐고요? 음,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욕구가 번갈아 나타나곤 하죠. 메뉴에서 뭘 주문할까? 앤더슨 커먼스에서 뭘 사 먹을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욕망의 변화 속에서, 당신은 마치 시소처럼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두 방향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게 됩니다. 의식 속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저것은 좋을 것 같아.' 이런 고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단순히 한 욕망이 다른 욕망보다 우세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의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에서 결국 한 욕망에 굴복하게 되고, 마지막에 승리한 욕망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은 결국 자신의 욕망이 모호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원인이 없다는 느낌은 끊임없이 변하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원인이 없는 행동이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내면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결정론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온건한 결정론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그 근거에서 그는 심리적 이기주의자로 드러납니다. 심리적 이기주의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는 경험적 일반화입니다. 이기주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견해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익입니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단지 서술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것은 심리학적 사실이며, 우리는 그렇습니다

윤리적 이기주의와는 달리, 그는 심리적 이기주의자입니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사실, 그는 나중에 그걸 부인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심리적으로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자기 보존 욕구입니다.

자기 이익. 우리가 바라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한다.

생존과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매우 다양한 가치와 악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이에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에 이끌립니다.

권력.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권력 투쟁이 되는 거죠.

그 권력 투쟁에서, 무엇이 권력을 부여하는가? 베이컨은 뭐라고 했지? 지식은 힘이다. 과학적 지식이 힘이다. 인과 관계를 알고 이해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글썄요, 그는 자연 상태와 자연 법칙을 구분합니다. 자연 상태는 갈등, 권력 투쟁, 그리고 만물에 대한 전쟁의 상태입니다.

인생은 비참하고, 짧고, 잔혹하다. 생존 욕구 외에는 자연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내재된 목적론에 근거한 자연법 같은 것은 없다.

아니, 이 우주는 기계론적 우주다. 인과 과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자연 법칙이란 무엇일까? 그는 올바른 이성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윌리엄 오브 아카”라는 말, “올바른 이성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시 말해, 결과주의적 사고방식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결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이해하면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행동의 결과에 대한 지식, 즉 올바른 추론은 힘입니다. 그렇다면 신중함과 자기

보존을 위해 올바른 추론은 어떤 자연 법칙을 제시 할까요 ? 첫째, 평화를 추구하라.

글쎄, 내전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스페인과의 전쟁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종교 갈등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망명 생활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 제발, 크롬웰과 화해하자. 평화를 추구하라고.

둘째, 다른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합의나 계약을 맺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성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절대 군주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크롬웰은 찰스 1세 못지않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을 통해, 즉 언약을 통해, 절대 군주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 군주는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완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보존 욕구가 우선시됩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가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통치자에게, 그리고 그의 말에 따라 행사됩니다. 따라서 왕권 신수설 대신에 , 정치적 권위의 토대가 계약론적 , 즉 사회 계약론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홉스가 에라스투스주의자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법은 올바른 이성이나 직접적인 계시, 또는 권위 있는 자들의 권위에 의해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이 될지는 통치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통치자의 권위 있는 해석이 종교 분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이 확립하려던 결론에 도달한 것 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갈등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종파주의와 당파적 정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결과를 고려한 올바른 이성이 이끄는 방향입니다. 음, 이 주제에 대해 10분 정도 더 이야기 나눠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흥미롭지 않나요? 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주제입니다.

비관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칼뱅주의의 전적 타락 교리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그가 갈등의 시대에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